

“호남 비교우위 문화자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힘쓸 것”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취임

“부담이 큼니다. 역사문화 연구진흥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탄탄히 다지면서도 누정·원림, 향약 등 호남의 비교우위 문화 자원을 정리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제3대 원장으로 홍영기 전 순천대 교수를 임명했다.

홍영기 원장은 15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7년 1월 14일까지 3년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원장을 공개 모집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 2명을 추천했다. 이후 이사회에서 홍영기 교수를 선정했다.



홍영기 원장은 전남대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순천대 사학과 교수,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사, 호남사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서훈심사위원, 전남도문화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말 의병 연구 전문가로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

구', '한말 후기의병',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등 여러 저서를 냈다. 지리산 문화 연구, 근현대 문화유산 등 호남한국학 연구에도 힘써 왔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호남한국학 진흥을 위해 지난 2017년 공동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6년여 동안 수집(기증·기탁)한 자료의 정리와 연구, 학술대회 개최, 자료집 간행,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지정문화재 20건 2015점을 비롯해 7만여점의 호남지역 한국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훼손·멸실 위기에 처한 기록유산의 조사, 수집, 보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전통과 미래를 잇는 한국학의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선임

녹색에너지연구원 신임 연구원장으로 황규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이 선임됐다. 황규철 신임 원장은 오는 2월 1일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간다.

서울 출신인 황규철 원장은 한양대 공학박사(화학공학전공)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34년간 본부장, 해상풍력추진단장,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을 주도하고 해상풍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황 신임 원장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실증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전문성·역량 중심의 인재 경영에 나서 전

남형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싱크탱크 도약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전비, 주민·장병 범죄 예방 ‘광주기지 지킴이’ 전개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15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지역주민과 장병들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광주기지 지킴이’ 2기 활동을 시행한다. <사진> 광주기지 지킴이는 1전비 간부 및 군무원으로 구성된 자율순찰대로 매주 1~2회 야간 취약시간대(오후 7시 30분~밤9시 30분)에 인근지역과 기지를 순찰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키우고 범죄예방 및 군기강화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1전비에서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대 내 간부 13명을 선정해 1기 지킴이로 임명하고 운영을

실시했다.

1전비는 성공적인 1기 운영을 바탕으로 인원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증가시키고, 순찰주기와 시간도 주 1회에서 2회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해 사고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기지 지킴이활동을 주관한 1전비 군사경찰대장 정세진 중령(진)은 “갑질년 청풍의 해에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사고 없는 1전비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김진혁 교수

한국재료학회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 김진혁(사진)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제25대 한국재료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1년.

김진혁 교수는 “제25대 회장으로서 학회의 내실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의

분과별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제 학술대회의 국제화 및 운영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1991년 2월 창립한 한국재료학회는 2023년 GCIM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매년 추계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SCOPUS 등재 학술지 ‘Korea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를 펴내고 있다.

한편 한국재료학회 2024 GCIM 국제 학술대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제엠네스티, 광주서 인권 편지쓰기 행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한 ‘광주에서 열리는 인권을 위한 편지 쓰기’(Write for Right) 행사가 13일 전일빌딩 245에서 열렸다.

광주전남북 회원들의 모임인 60그룹(그룹장 임주화)이 함께 준비한 이날 행사에는 엠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과 회원을 비롯해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아를 살인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브라질의 안나 마리아 산토스 크루즈 등 6명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편지를 썼다.

부당한 사형선고를 받고 미국 감옥에 수감

중인 로키 마이어스를 위해 그림 편지를 쓴 김연재(방림초 4)군은 “감옥에 창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깥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60그룹 임주화 그룹장은 “올해가 인권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는데 오늘 광주 행사가 그 시작을 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정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한국지부의 출범인 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에서 편지쓰기 캠페인을 펼치게 돼 의미가 있다”며 “한국지부 50주년을 맞아 피플 파워를 강화하고 지방 회원들과의 연대를 위한 의미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인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아침법	45 뽀뽀뽀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도시의 기록(재)	0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재)	15 헬로킴지 공학교실(재) 30 주니토니아가기 45 이 맛에 산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특집 뉴 호라이즌-새로운 지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집 금슬아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골재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킴지 동물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루크(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어린이 동물티비(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재)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트로트 클래스 3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크740	50 우아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더 시즌즈 베스트 55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1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	00 솔로동창회 학연	20 김성진VS
11	30 영성앨범 신(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골대 걸스 스페셜	30 100분토론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55 TV예술무대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끼 구조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아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몸	18:4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월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나는 전설이다. 에티오피아 -골목의 전설, 히라르
08:20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35 한국기행
08:35 뽀뽀뽀 뽀로로	16:40 당동명 유치원(재)	내가 꿈꾸던 고향 2부 피보다 진한 우정
08:50 사사 앤 마일로	17:00 페파 피그	21:55 EBS 다큐프라임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22:50 건축탐구 - 집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	17:25 미스터리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6일(음 12월 6일 己卯)

<p>36년생 임의 선수를 정한 다음에 중점 사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48년생 생활화한다면 참으로 유용할 것이다. 60년생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72년생 말년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가 보인다. 84년생 지난해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느니라. 96년생 애매하다면 흥하니 흑백은 확실하게 가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7, 50</p>	<p>42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54년생 기교가 수의 창출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66년생 맞대응하려 하지 말고 에뮬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78년생 양념을 잘 쳐야 음식 맛이 나는 이치로다. 90년생 밤상하다가 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02년생 임시 미봉책은 두벌일시 킬 것이니 제대로 하자. 행운의 숫자 : 43, 75</p>
<p>37년생 현명하게 살펴본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49년생 고질적인 병폐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기쁨이 있다. 61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3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느니라. 85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97년생 의도는 좋으나 효용이 약한 것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09, 68</p>	<p>43년생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느니라. 55년생 하다가 조정하면 될 것이니 일단 시작해 놓고 볼 일이다. 67년생 변화하는 형세이니 신속히 대응하자. 79년생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1년생 다수자가 이마를 맞고도 심각하게 의논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03년생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자. 행운의 숫자 : 01, 71</p>
<p>38년생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50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2년생 한 걸음이어만 인정받게 되리라. 74년생 주저해 왔던 일에 대한 결집이 나타날 것이니 함께 하자. 86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 미리 챙겨 둘 필요는 없다. 98년생 반드시 작용하고 있는 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1, 54</p>	<p>44년생 쓸 곳은 많은데 없어서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56년생 확실하게 한계를 긋지 않으면 장래에 난처한 입장이 되는 원인 요소로 작용한다. 68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리라. 80년생 흔들리지 않는 안목과 독창성이 요구되는 판도이다. 92년생 날같이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04년생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91</p>
<p>39년생 지금, 분방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51년생 굳이 내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다. 63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75년생 지난해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87년생 다시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날이다. 99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라. 행운의 숫자 : 41, 58</p>	<p>45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57년생 현 상감 있는 실재적 요령이 절실한 때이다. 69년생 재만 사정을 차지하고 당면 과제에 몰두하는 것이 옳다. 81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이다. 93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착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05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6, 78</p>
<p>40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52년생 약간만 활용해도 만이한 결과를 날기에 충분하리라. 64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히 선회하는 것이 유익하다. 76년생 큰일나게 되어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88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00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69</p>	<p>46년생 핵심 가치를 좇는다면 반드시 실리가 따를 것이다. 58년생 부담하다면 결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70년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정담은 금물이다. 82년생 내용이 알차겠지만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94년생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이 보인다. 06년생 소중환 사람이나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95</p>
<p>41년생 가려서 행하지 않으면 남패를 볼 수다. 53년생 조바심을 버려야만 성사의 길목으로 들어선다. 65년생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77년생 머지않아 속개 될 것이니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리라. 89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01년생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03, 85</p>	<p>35년생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머지않아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47년생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하자. 59년생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야 공유했 수 있다. 71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83년생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겠다. 95년생 명확한 기준으로 개념을 분리하자. 행운의 숫자 : 04, 97</p>